

고려시대 토광묘의 장송의례 시설과 배경

- 양광도지역을 중심으로 -

Funeral Ritual Facilities for Pit Tombs
in the Goryeo Dynasty
-With focus on the Yanggwang Province-

장 우 정

(재)화서문화재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분석

III.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변화과정

IV.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배경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변화과정과 배경에 대하여 당시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적 관점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묘역시설묘(I)의 경우 관인분묘와 분묘보수의 금제로 보아 목관(i)에 부장시설(A)과 벽사시설(B) 등 장송의례 시설이 확인되었고, 그 피장자는 품계와 경제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를 중시하는 것을 부장품과 묘역시설 규모를 통해 확인하였다. 무묘역시설묘(II)의 경우 망자의 시신을 보호하는 사물곽(a)이 묘역시설묘(I)에 비해 낮은 점유도를 보여, 무묘역(II)의 단순토광묘(ii)를 사용하는 낮은 계층일수록 예법을 경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송의례 시설과 관련된 속성을 파악한 후 총 3단계로 분류하여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의 보급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1단계는 10C 전엽~12C 전엽으로 유교 예법을 가장 잘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는 복합의례시설(C)이 1기 확인되었고, 성종6년(987) 12목 경학박사 과견, 정종 6년(1040) 방상시의례 등의 사료를 통해 유교 예법이 보급되어 토광묘에 장송의례 시설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는 12C 중엽~13C 중엽으로 복합의례시설(C)의 점유도와 축조량 모두 증가한 점을 확인하였고, 묘역시설(I)과 사물곽(a)이 등장하여 예종4년(1109) 국학 7재 설치, 인종13년(1135) 국자감 대사성의 장례감독 등의 사료를 통해 유교사상적 장송의례가 전문화되어 장송의례 시설에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단계는 13C 후엽~14C 후엽으로 복합의례 시설(C)의 점유도와 축조량 모두 2단계보다 증가하며, IIICa식과 같은 묘역시설(I)에 사물곽(a)이 시설되거나, IIICb식과 같이 무묘역(II) · 단순토광묘(ii)에서 복합의례시설(C)과 경제성이 낮은 부장품이 확인되어 『朱子家禮』의 보급이 전 계층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교식 상장례의 배경으로 유교 삼례서인 『周禮』, 『儀禮』, 『禮記』와 『朱子家禮』를 살펴보았다. 『周禮』에서는 명기를 부장하는 편방과 방상시의 사우혈 그리고 방습을 위해 시설하는 조개껍질 등 사물곽(a)의 존재를, 『儀禮』에서는 총인이 행하는 총인의례시설의 존재를, 『禮記』에서는 설치와 염습에서 뿐수저와 가위의 사용을, 『朱子家禮』에서는 방상시의 사우혈과 편방의 시설, 시신을 보호하는 사물곽(a)의 사용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토광묘의 장송의례 시설은 유교 예서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고려, 토광묘, 장송의례, 유교

I . 머리말

고려는 중세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과거제를 실시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등 통치이념으로서 유교를 중시하였다. 특히 유교는 예법을 중시하여 상장례에 큰 비중을 두었고, 이는 상장례의 마지막 과정인 장송의례 중 분묘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인 분묘와 장송의례 시설의 배경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전국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분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매장주체부와 출토유물을 통해 묘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거나, 피장자의 계층성을 파악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고(이희인 2002; 고현수 2004; 오경택 2005; 박미숙 2006; 황은경 2011; 박현열 2010, 2012; 신승철 2011; 이성배 2013; 전경숙 2015; 고금님·장지현 2013; 고인해 2019; 이원정 2022), 고려시대 분묘에서 확인되는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는『朱子家禮』가 도입되는 고려말에 시작되는 것으로만 파악되었다(양미숙 2005; 이성배 2013; 주영민 2011, 2013). 그러나 고려시대는 과거제를 시행한 광종 9년(958)¹⁾을 시작으로 유교경전인『周禮』,『儀禮』,『禮記』를 과목으로 하는 삼례업이 나타나 고려 전기부터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와 관련된 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성과로 고려 중기(12~13세기)를 기점으로 석곽묘 축조량의 감소와 토광묘 축조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토광묘의 피장자는 다른 묘제에 비해 계층이 다양하므로 장송의례 시설의 변화과정 파악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은 고려시대 분묘 중 조사되어 보고서가 발간된 토광묘에 한정했으며, 토광묘의 주요 피장자로 추정되는 정호충과 과거제 출신의 관료들이 받는 전시과의 주요 대상지인 양광도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고려왕조가 개창하는 10세기 초부터 패망하는 14세기 말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고려 전시기에 시행된 지방제도인 5도 양계를 따랐으며, 주요 거점인 남경(양주목), 광주목, 충주목, 청주목, 공주목을 포함하고 있어 분묘자료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의 부속시설을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와 관련된 속성으로 확인하고, 출토유물을 통한 편년 및 단계설정으로 변화과정을『高麗史』, 분묘출토 묘지명과 같은 사료와 유교 삼례서『周禮』,『儀禮』,『禮記』와『朱子家禮』에 대조하여 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光宗 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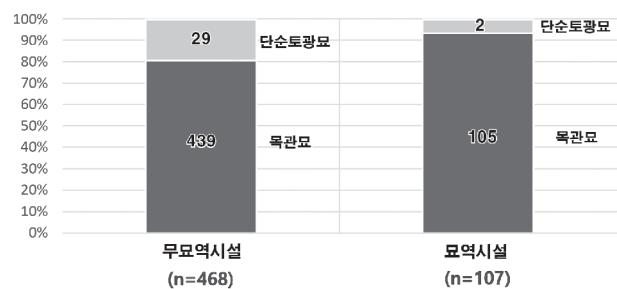
Ⅲ.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분석

1. 양광도지역 토광묘 조사현황

본 연구에서는 양광도지역을 성종 2년(983) 전국 12목 지방관 파견과 현종 9년(1018) 지방제도 개정에 따른 5도 양계에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중첩시켜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총 7개 자치구역으로 확장하였다.

양광도지역에서 밀굴조

사 된 총 329건의 고려시
대 분묘유적(국립강화문화
재연구소 2019, 2020) 중
훼손율이 높거나 잔존깊이
가 낮아 부속시설의 여부
가 불분명한 것, 고려시대
토광묘로 보고되었으나
유물의 출토량이 적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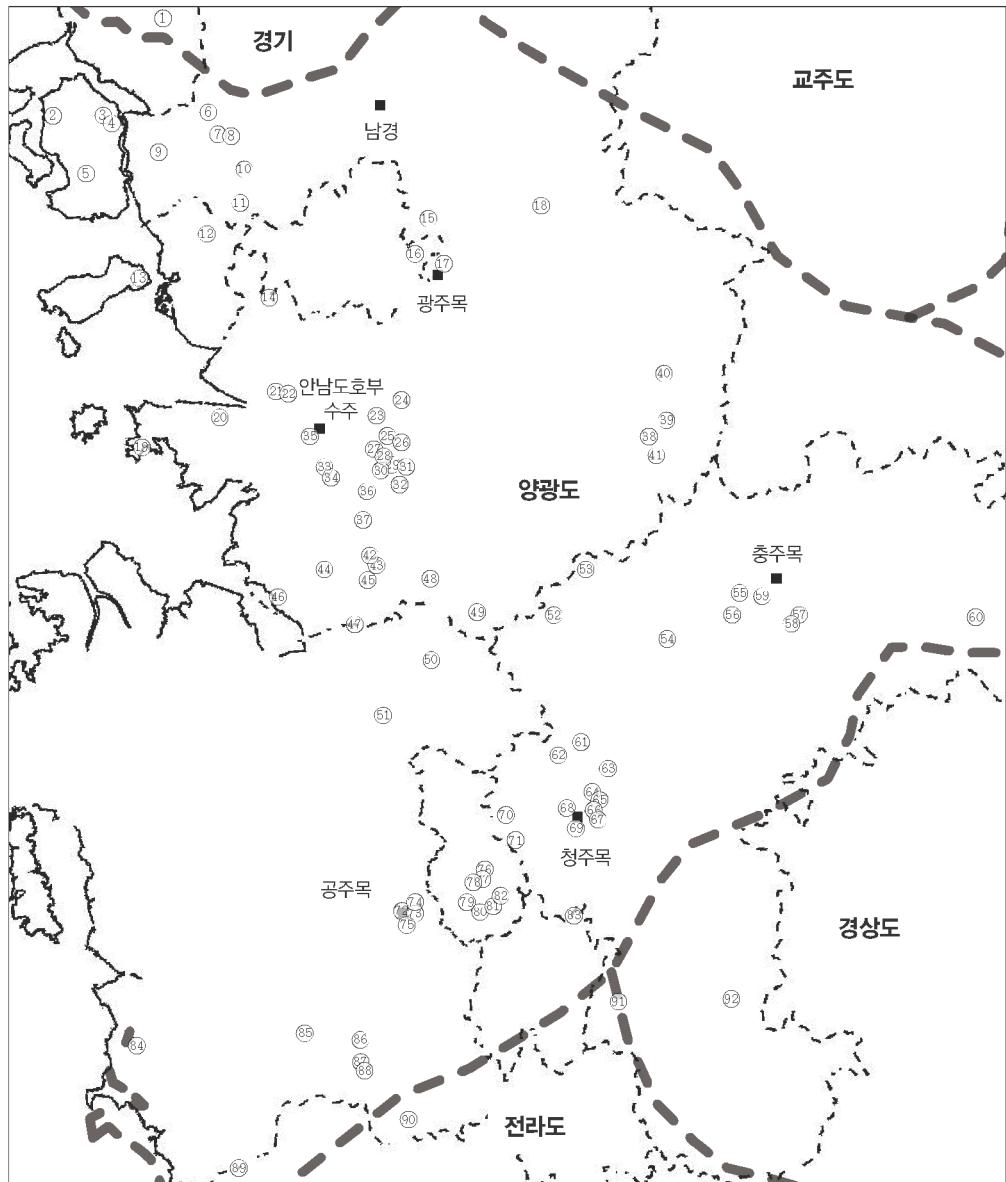
[도면 1] 양광도지역 토광묘 현황

년이 불확실한 분묘 등을 제외한 총 575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또한 토광묘는 목관을 쓰는 목관묘와 관을 쓰지 않는 단순토광묘로 구분하였다(도면 1).²⁾ 고려시대 분묘는 상위묘제인 왕릉과 관인분묘로 채용된 석실묘, 석곽묘를 제외한 토광묘에서도 경종 원년(976) 분묘보수의 금제³⁾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료층의 묘역시설이 분묘에 나타난다. 특히 묘역시설을 갖춘 토광묘의 피장자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 과거제를 통해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2) 경기도지역에서는 상례기간 중 목관에 망인을 안치한 후 운구하여 매장 직전 탈관하는 풍습이 있다. 탈관은 관의 나무가 부패한 후 망인의 시신과 흙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끌려 시신이 흙과 닿아 고르게 부패하기를 바라는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시신의 보존과 도굴 방지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장송관념과는 거리가 멀어 단순토광묘와 탈관의례의 연관성은 배제하였다.

3) 『高麗史』, 卷八十五, 志 卷第三十九, 刑法 二.

4) 청자 혹은 금속기명과 같은 경제성이 높은 부장품이 출토되는 토광묘의 피장자를 지방 부호 · 향리로(이희인 2002: 52~54), 하급관리 혹은 군인 등으로(박미숙 2006: 72~78), 정호충으로 한정하거나(황은경 2011: 107~117), 토광묘 주요 피장자는 서인 중 정호충으로 군인 · 향리 등 전시과를 지금 받는 하급관리로(전경숙 2015: 94~101), 혹은 분묘보수의 금제에 해당하는 하급관리충으로 토광묘의 피장자를 볼 수 있다(주영민 2013: 237~242, 이원정 2022: 93~100).



1. 개성공업지구
2. 강화 창후리
3. 강화 대산리
4. 강화 월곶리
5. 강화 석릉주변
6. 파주 법흥리
7. 파주 운정
8. 파주 와동리
9. 김포 귀천리
10. 고양 식사동
11. 고양 더부골
12. 인천 검단 원당동
13. 인천 중산동
14. 서울 천왕동
15. 남양주 지금동
16. 서울 고덕동
17. 하남 덕풍동
18. 양평 노문리
19. 안산 대부도
20. 화성 우음도
21. 안산 부곡동
22. 화성 둔대리
23. 수원 광교
24. 용인 보정리
25. 용인 영덕동
26. 용인 공세동
27. 화성 반월
28. 화성 동학산
29. 화성 청계리
30. 화성 반송리
31. 화성 중리
32. 화성 산척리
33. 화성 분천리
34. 화성 와우리
35. 화성 송라리
36. 오산 가장동
37. 평택 수월암리
38. 여주 상거동
39. 여주 매봉리
40. 여주 외봉리
41. 여주 하거리
42. 평택 서정동
43. 평택 장당동
44. 평택 토진리
45. 평택 궁리
46. 평택 도곡리
47. 평택 본정리
48. 안성 만정리
49. 안성 신능리
50. 천안 남산리
51. 아산 매곡리
52. 진천 회죽리
53. 음성 양덕리
54. 진천 신천리
55. 충주 엄평리
56. 충주 본리
57. 충주 호암동
58. 충주 단월동
59. 충주 누암리
60. 단양 현곡리
61. 청주 학소리
62. 청주 주성리
63. 청원 마산리
64. 청주 율량동
65. 청주 명암동
66. 청주 용담동
67. 청주 용암
68. 청주 봉명동
69. 청주 산남동
70. 청주 만수리
71. 청주 황탄리
72. 공주 정지산
73. 공주 신관동
74. 공주 금흥동
75. 공주 금학동
76. 연기 보통리
77. 연기 연기리
78. 연기 갈운리
79. 공주 제천리
80. 연기 석삼리
81. 연기 장재리
82. 연기 봉기리
83. 대전 미호동
84. 보령 구룡리
85. 부여 화지산
86. 부여 송국리
87. 논산 원북리
88. 논산 정지리
89. 서천 추동리
90. 논산 동산리
91. 옥천 옥각리
92. 옥천 인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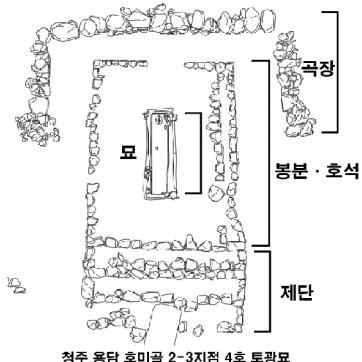
[도면 2] 양광도지역 토광묘 유적 분포현황

2.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속성과 형식

1)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속성

(1) 묘역시설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통칭한다. 또한 분묘보수의 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묘역의 규모를 품계의 차등에 따라 나누어 통제하는 것으로, 장송의례를 행하는 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묘역시설이 확인되는 토광묘를 묘역시설묘(I)로, 묘역시설이 부존하는 토광묘를 무묘역시설묘(II)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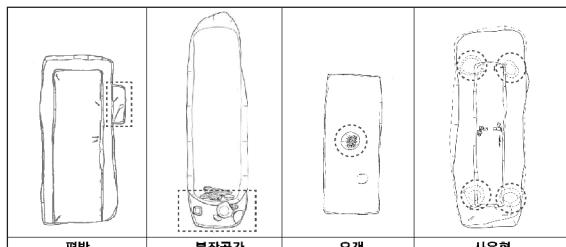
[도면 3] 묘역시설과 구성요소

(2) 매장주체부

시신이나 관, 부장품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로 목관, 옹관, 석곽, 석실 등 축조재료와 수혈식, 횡구식 등 시신을 매장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교 삼례서와 『朱子家禮』에 따라 석재를 쓰지 않고 묘도가 없는 토광목관묘(i)와 단순토광묘(ii)로 분류한다.

(3) 매장주체부 부속시설

묘광 내 설치되는 장송의례와 관련된 여러 시설로서 편방, 부장 공간, 요갱, 사우혈 등이 있다. 하관의례 후 사용된 제기들을 부장하는 ‘부장공간’⁵⁾과 ‘편방’⁶⁾을 부장시설(A)로, 공납물 · 지진구 등 의 유물이 출토되는 ‘요갱’과 묘



[도면 4] 매장주체부 부속시설

5) 묘광 내에 시신의 머리 혹은 발치쪽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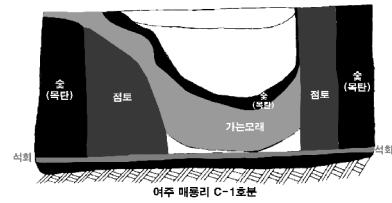
6) 감실, 벽감, 편방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朱子家禮』 내 표현에 근거하여 편방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광 내 네 개의 소혈인 ‘사우혈’⁷⁾을 벽사시설(B)로, 부장시설(A)과 벽사시설(B)이 함께 확인되어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에 가장 가까운 시설로 여겨지는 복합의례시설(C), 묘광 내 시설이 부존하는 무시설(D)로 분류한다.

(4) 사물곽

사물곽(四物櫥)은 묘광 바닥 혹은 바닥과 양벽, 하관 이후 목관을 감싸는 육면에 석회, 목탄, 점토, 가는 모래 등이 섞이거나 단독으로 시설하여 망인의 시신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朱子家禮』에서 강조한 석회, 목탄, 점토, 가는 모래 등 ‘사물’과 『周禮』에

서 묘광의 방습을 위해 사용하는 조개껍질류 등이 확인되거나 철재나 목탄처럼 방습 기능을 하는 물질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사물곽(a)으로, 목관 주위에 사물곽이 부존하는 경우를 무곽(b)으로 분류한다.



[도면 5] 사물곽 예시

2)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형식분류와 편년

(1) 형식분류

앞서 분석한 토광묘 장송의례 속성을 연구대상인 토광묘 575기에 적용한 결과 총 19가지 형식이 도출되었다.

묘역시설(I) · 무묘역시설(II) 모두 무시설식(D)의 점유도가 가장 높았으나, 목관묘(i)와 단순토광묘(ii) 등 매장주체부에서 무시설식(D)을 제외한 각 시설별 점유도가 유의미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묘역시설묘(I)의 경우, 대부분 목관(i)을 사용하며 부장시설(A)과 벽사시설(B)이 확인되었고, 사물곽(a)이 무묘역시설묘(II)에 비해 높은 점유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묘보수의 금제에 해당하는 품계를 가진 계층에서 공유되었던 특정 관념의 장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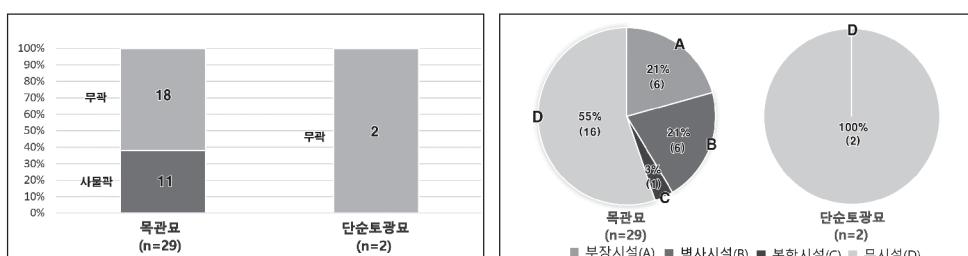
7) 기존연구에서는 묘광바닥에 나타나는 네 귀퉁이의 작은 구멍을 ‘사우혈’로 명명하면서 의례행위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하거나(양미옥 2005: 66~68), 13세기 이후 충청지방에 등장하는 『朱子家禮』의 방상시의례로 추정하거나(주영민 2013: 153~155), 요생과 함께 11~12세기 등장하다 13세기 이후 소멸하는 불명의 부속시설(신승철 2011: 59~63) 또는 12세기전엽(고금님 · 장지현 2013: 82~83)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례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무묘역시설(II)의 경우, 단순토광묘(ii)에서 망자의 시신을 보호하는 사물곽(a)이 적게 확인되어 무묘역(II)의 단순토광묘(ii)를 사용하는 피장자 계층은 장송의례의 예법을 비교적 경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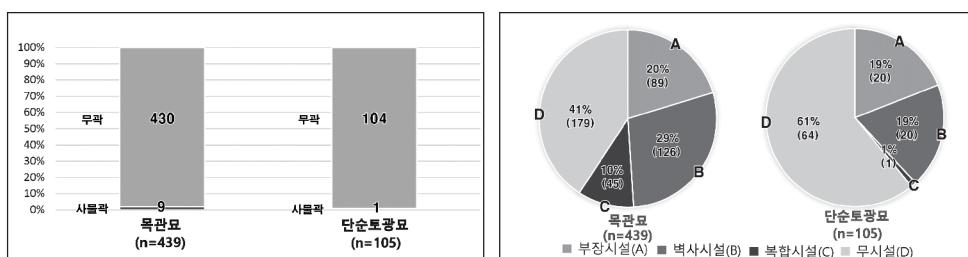
따라서 주로 묘역(I) · 무묘역시설(II) 목관묘(i)의 피장자가 부장시설(A) · 벽사시설(B)과 『周禮』, 『朱子家禮』에서 강조하는 시신의 보호를 위한 사물곽(a)의 점유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묘역시설(I) · 목관묘(i) 조합이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와 가장 가까운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도면 6 · 7).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형식은 다음의 [도면 8 · 9]와 같다.

[표 1] 양광도지역 토광묘 형식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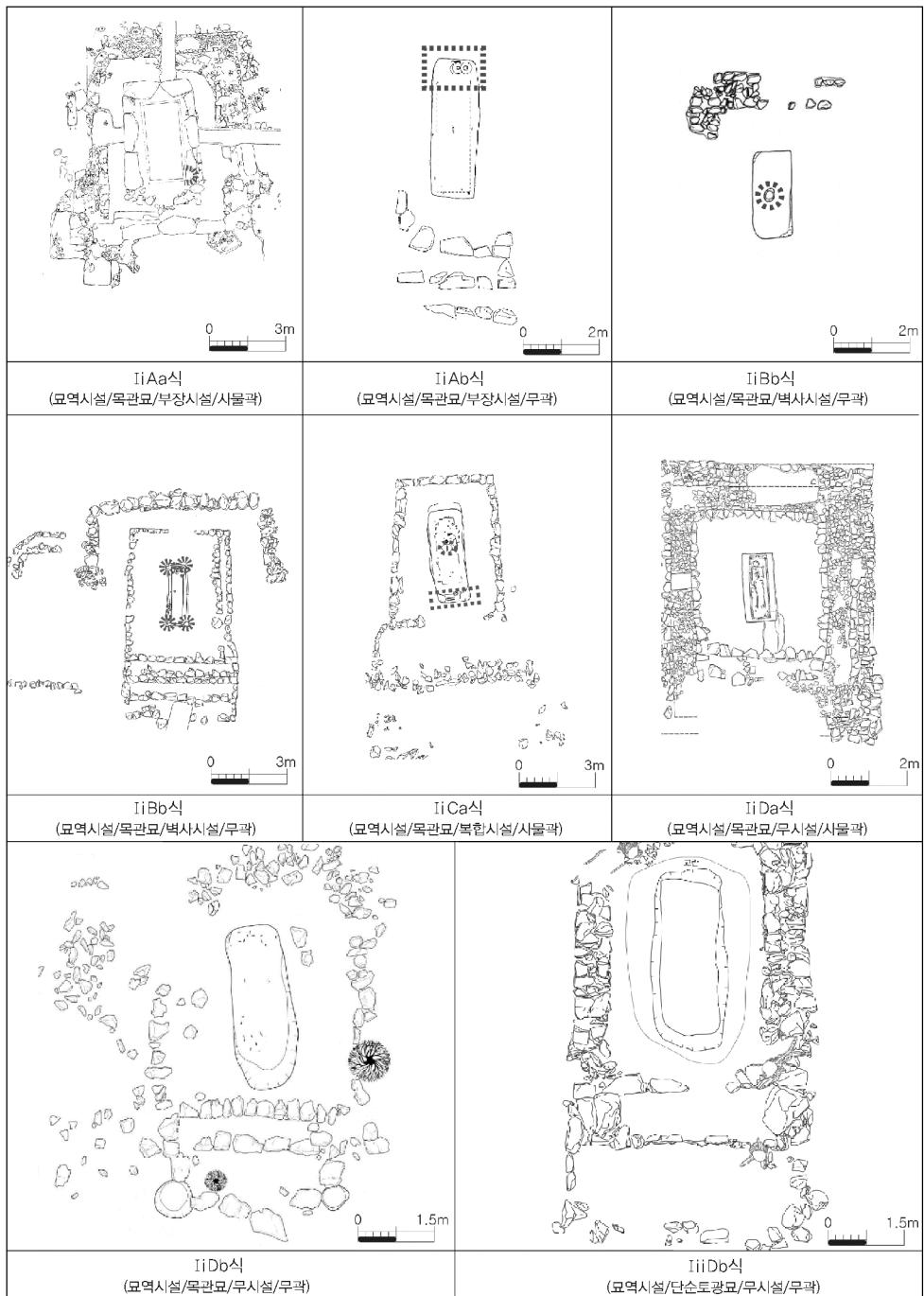
묘역시설		시설			
		A (부장) 부장공간, 평방	B (벽사) 사우혈, 요강	C 복합 부장+벽사	D 무시설
		a (四物 : 목단, 석회, 세사, 점토)	b (무곽)		
I (묘역시설)	i (목관)	IiAb	IiBb	-	IiCa
	ii (토광)	-	-	-	IiDb
II (無묘역시설)	i (목관)	IIiAa	IIiBa	-	IIiDa
	ii (토광)	IIiiAb	IIiiBb	IIiiCb	IIii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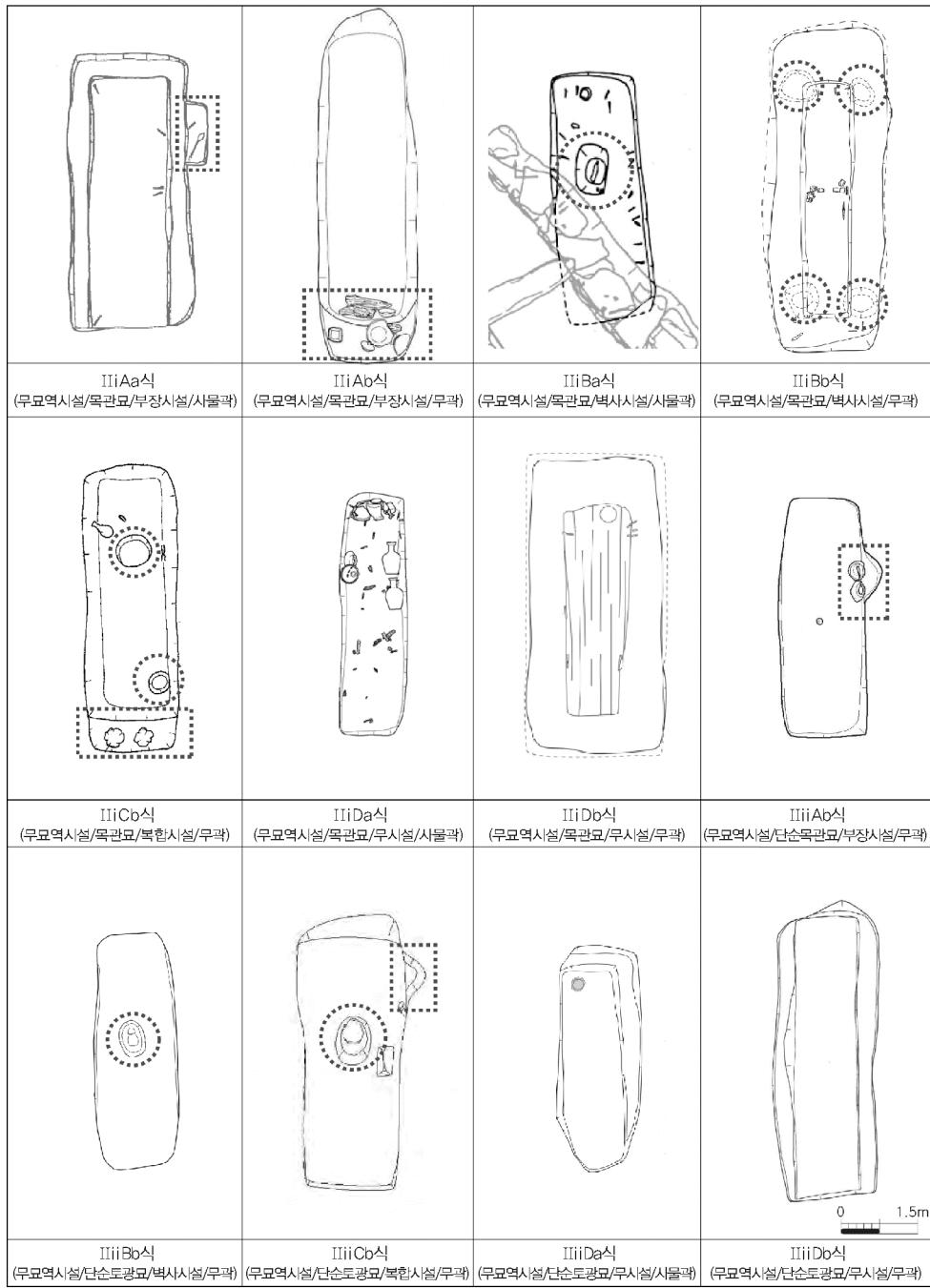
[도면 6] 양광도지역 토광묘 묘역시설(I) 점유도



[도면 7] 양광도지역 토광묘 무묘역시설(Ⅱ) 점유도



[도면 8] 양광도지역 토광묘의 묘역시설(I) 형식



[도면 9] 양광도지역 토광묘의 무묘역시설(Ⅱ) 형식

(2) 편년

앞서 확인된 19가지의 형식별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청자 혹은 도기 등 편년에 용이한 출토유물의 선행연구¹⁸⁾를 참고하고 인접 유구 및 유적의 편년결과를 검토하여 등장과 소멸시기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묘역시설(I) 토광묘는 12세기 중엽~13세기 중엽 유행하는 쌍용문동경이 출토된 IiiDb식의 강화 대산리 3호묘를 시작으로, 13세기 후엽 이후 등장하는 ‘X’자형 철제가위·청동시/저 조합이 출토된 IIICa식의 용인 공세동 D호묘와 주조연대가 14세기인 대중통보가 출토된 IIIBb식의 하남 덕풍동 9호묘를 보았을 때, 묘역시설(I) 토광묘는 고려 중기에서 시작하여 고려 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묘역시설(II) 토광묘는 10세기로 편년되는 교구·과관 조합의 철제파대가 출토된 IIIBb식의 안성 만정리 신기 1호 토광묘와 IIIIDb식의 공주 정지산 1호묘와 초기단계 청자인 선해무리굽완이 출토된 IIICb식의 고양 더부골 22호묘가 확인된다. 또한, 12세기 중엽~13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당초문이 상감된 청자광구병이 출토된 IIIAa식의 충주 단월동 2호묘와 역시 12세기 중엽~13세기 중엽에 유행하는 서화쌍앵풀능형동경이 출토된 IIIIDa식의 충주 호암동 복합 3지점 70호묘가 확인된다. 13세기 후엽 이후 등장하는 청자화형접시 등이 출토되는 IIAb식의 충주 호암동 3지점 43호묘와 IIICb식의 화성 중리 13호묘를 보았을 때, 무묘역시설(II) 토광묘는 목관묘(i)와 단순토광묘(ii)형식 모두 고려 전시기에 걸쳐 확인된다.

3.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단계설정

1) 단계설정

고려왕조는 지방호족과 중앙세력이 공존하는 전기, 지방호족이 약화되고 중앙세력인 문벌귀족이 융성하는 중기, 무신정권의 대몽항쟁에 이어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 원간섭기의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유교 삼례서『周禮』,『儀禮』,『禮記』와 고려말 성리학 예서인『朱子家禮』가 보급 및 전파되는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각 기점을 다음의 사료에 근거해 파악함으로써 단계설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8) 고려시대 토광묘 출토유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청자·도기(강경숙 2015: 119~140; 박미옥 2006: 33~58; 양미옥 2003: 83~105), 동경(설지운 2015: 79~88), 철제가위(이민규 2022: 150~151), 청동시/저(정의도 2007: 126), 과대(김명훈 2017: 53)

사료1) 13대 선종 원년(1084), “…삼례업은 『禮記』20권을 편집대경으로 하는데,
…, 『周禮』와 『儀禮』를 소경으로 한다.”⁹⁾

사료2) 15대 숙종 7년(1102), “삼례업과 삼전업 출신인 자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아서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해아려 서용함으로써 후생 중에서 이 과목을 하는 자들을 국자감에서 권려하도록 하시옵소서.”¹⁰⁾

사료3) 28대 충렬왕 15년(1289), “…안향이 여러 재상에게 말하기를, ‘공자의 도는 만대의 규범으로…’, 공자와 70제자의 초상화를 그리고, 아울러 제기·악기·6경과 제자서와 사서를 구입하여 오게 하였다.”¹¹⁾

[표 2] 양광도지역 토광묘형식의 단계별 편년표

		1단계					2단계					3단계		
		10전	10후	11전	11후	12전	12중	12후	13전	13중	13후	14전	14후	
묘역시설	IiAa	
	IiAb	
	IiBb	
	IiCa	
	IiDa	
	IiDb	
무묘역시설	IIIiDb	
	IIiAa	
	IIiAb	
	IIiBa	■	.	.	.	
	IIiBb										.	.	.	
	IIiCb										.	.	.	
	IIiDa	
	IIiDb	
	IIIiAb										.	.	.	
	IIIiBb	

9) 『高麗史』, 卷73 選舉一.

10) 『高麗史』, 卷七十三, 志, 卷第二十七, 選舉一.

11) 『高麗史』, 「列傳」卷18 諸臣 安珦.

상기 사료들을 참고하여 고려 전기 중 삼례업의 시험과목이 확정되고 과거시험에 의한 등용이 장려되는 1102년 이전을 1단계로, 이후를 2단계로(사료1·2), 고려 후기『朱子家禮』 및 예서들이 재보급되는 1289년 이후를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사료3). 이렇게 설정된 단계에 각 형식별 편년결과를 대입하면 [표 2]와 같이 정리되며, 유적별 형식과 단계분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양광도지역 토광묘 유적별 형식분류 및 단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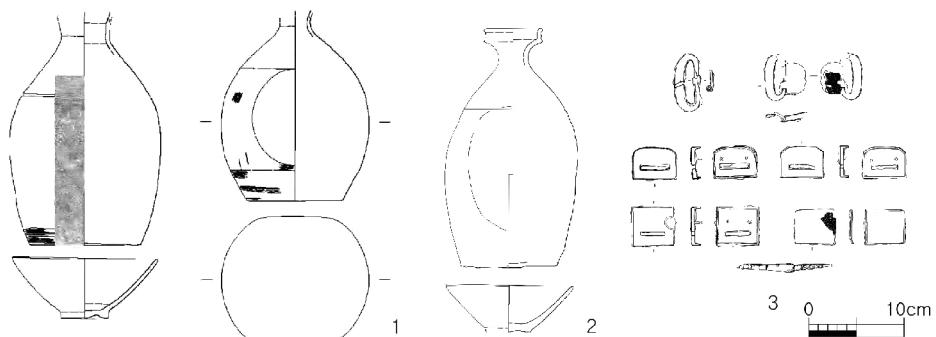
유적	형식	분묘현황	단계
1. 개성공업지구유적	IIIBb식	1	1
2. 강화 창후리	IIIDb식	2	2
3. 강화 대산리	IiIDb식, IIIDb식, IIIIDb식	6	2~3
4. 강화 월곶리	IIIAb식	1	1
5. 강화 석릉주변	IIDb식, IIIDb식	3	2
6. 파주 법흥리	IIIAb식(요강, 사우혈+요강)	6	2~3
7. 파주 운정	IIIAb식(편방), IIIDb식, IIIAb식(부장공간)	3	1~2
8. 파주 와동리	IIIDb식	1	2
9. 김포 귀천리	IIIDb식, IIIIDb식	2	2
10. 고양 식사동	IIIAb식(부장공간), IIIDb식	2	2
11. 고양 더부골	IIIAb식(부장공간), IIIBb식(요강), IIIAb식(부장공간), IIIBb식(요강), IIICb식(요강+부장공간), IIIAb식(부장공간), IIIIBb식(요강)	45	1~3
12. 인천 검단 원당동	IIIDA식, IIIDb식	2	2
13. 인천 중산동	IIIAb식(편방)	1	2
14. 서울 천왕동 연지	IIIAb식(부장공간), IIIBb식(요강), IIIDb식,	15	2~3
15. 남양주 지금동1.2/지금동 I	IIIAb식(편방), IIIBb식(요강, 이소혈), IIICb식(요강+부장공간), IIIDb식, IIIAb식(편방), IIIIBb식(요강), IIIIDb식	16	2~3
16. 서울 고덕동 암사동	IIIBb식(사우혈), IIIIDb식	4	1~2
17. 하남 덕풍동	IIIBb식(요강)	1	3
18. 양평 노문리	IIIBb식(요강)	1	2
19. 안산 대부도	IIIBb식(요강), IIIDb식, IIIAb식(부장공간, 편방), IIIDb식	23	2~3
20. 화성 우음도1,2	IIDb식, IIAb식(부장공간), IIICb식(요강+편방), IIIDb식, IIIIDb식	10	2~3
21. 안산 부곡동	IIIDb식	1	2
22. 화성 둔대리	IIIDb식, IIIIBb식(이소혈)	2	2~3
23. 수원 광교신도시V	IIIDb식	1	1
24. 용인 보정리 소실	IIIAb식(부장공간)	1	2
25. 용인 영덕동	IIIBb식(요강)	1	3
26. 용인 공세동 고려고분/ 공세동 유적	IIICa식(복합의례+사물곽), IIIDa식(사물곽), IIIIBb식(요강)	3	2~3

유적	형식	분묘현황	단계
27. 화성 반월지구	IiDa식(사물곽)	1	3
28. 화성 동학산	IIiBb식(요강)	1	3
29. 화성 청계리	IIiBb식(요강)	1	3
30. 화성 반송리 행장골	IIIIdb식	2	2
31. 화성 영천리 중리 오산리	IIiDb식, IIiAb식(편방)	3	2~3
32. 화성 산적리	IIiAb식(편방), IIIIdb식	4	3
33. 화성 분천리	IIiAb식(부장공간), IIiBb식(사우혈,요강), IIiCb식(요강+편방), IIIIdb식	17	2~3
34. 화성 와우리	IIIIdb식	3	2
35. 화성 송라리	IiDa식(사물곽)	1	3
36. 오산 가장동	IIiAb식(편방), IIiBb식(요강), IIIIdb식	6	2~3
37. 평택 수월암리	IIiBb식(요강,이소혈), IIiCb식(요강+부장공간, 요강+편방), IIIIdb식	15	3
38. 여주 상거동	IIiIdb식	1	2
39. 여주 매룡리 용강골	IiAa식(사물곽), IIIIdb식	2	2
40. 여주 외룡리	IIiIdb식	1	2
41.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IIiAb식(편방), IIIIdb식	2	3
42. 평택 서정동	IIiBb식(요강), IIIIdb식	3	2~3
43. 평택 장당동	IIiAb식(부장공간), IIiBb식(요강), IIiCb식(요강+부장공간), IIIIdb식, IIiAb식(편방), IIiBb식(요강)	11	1~3
44. 평택 토진리	IIIIdb식	4	3
45. 평택 궁리	IIiAb식(부장공간)	1	1
46. 평택 도곡리	IIiBb식(사우혈), IIiIdb식	2	1~2
47. 평택 분정리	IIiBb식(사우혈+요강), IIIIdb식	2	2
48. 안성 만정리 신기	IIiBb식(사우혈,이소혈)	2	1~3
49. 안성 신능리	IIiBb식(요강), IIIIdb식, IIiBb식(편방), IIiIdb식	11	2~3
50. 천안 남산리	IiDa식(사물곽)	1	2
51. 아산 매곡리	IIiIdb식, IIiIdb식	3	1~2
52. 진천 회죽리	IIiIdb식	1	2
53. 음성 양덕리	IIiIdb식	1	2
54. 진천 신천리	IIiIdb식	1	2
55. 충주 영평리 Ⅱ	IIiIdb식	2	2
56. 충주 본리 새터골 I	IIiIdb식	1	2
57. 충주 호암동/호암동복합/ 호암동스포츠타운	IIiAa식(부장공간,사물곽), IIiAb식(부장공간,편방), IIiBa식(요강,사물곽), IIiBb식(요강), IIiCb식(편방+요강, 부장공간+요강), IIIIdb식, IIiAb식(부장공간), IIiDa식(사물곽), IIIIdb식	74	1~3
58. 충주 단월동 1,2	IIiAa식(편방,사물곽), IiDa식(사물곽), IIiAa식(부장공간,사물곽), IIiAb식(부장공간), IIIIdb식, IIIIdb식	10	1~3
59. 중원 누암리	IIiBa식(요강, 사물곽)	1	2

유적	형식	분묘현황	단계
60. 단양 현곡리	ⅢiBb식, ⅢiDa식(사물곽), ⅢiDb식	6	2~3
61. 청주 학소리1	ⅢiBb식(요강), ⅢiDb식, ⅢiiDb식	3	2~3
62. 청주 주성리	ⅢiBb식(요강), ⅢiDb식, ⅢiiAb식(부장공간), ⅢiBb식(요강), ⅢiiDb식	9	2~3
63. 청원 마산리	ⅢiAb식(편방), ⅢiBb식(요강), ⅢiCb식(편방+요강), ⅢiDb식, ⅢiiAb식(편방), ⅢiiDb식	11	2
64. 청주 율량동 역대골/ 주동동	ⅢiAb식(편방), ⅢiiDb식, ⅢiBb식(요강), ⅢiiDb식	10	1~2
65. 청주 명암동	ⅢiBb식(사우혈, 사우혈+요강), ⅢiDb식	7	2~3
66. 청주 용담동 호미골	ⅢiBb식(사우혈), ⅢiBb식(요강), ⅢiDb식	4	2~3
67. 청주 용암/용암동 운동동	ⅢiAb식(편방, 부장공간), ⅢiBa식(요강), ⅢiBb식(사우혈+요강, 사우혈, 요강), ⅢiDb식, ⅢiiDb식	39	1~3
68. 청주 봉명동	ⅢiAb식(부장공간), ⅢiBb식(요강), ⅢiCb식(부장공간+요강, 편방+요강), ⅢiDb식, ⅢiiBb식(요강)	21	2~3
69. 청주 산남동 원흥리 VII	ⅢiBb식(사우혈, 요강, 사우혈+요강)	10	2~3
70. 청주 만수리	ⅢiAb식(편방), ⅢiDb식	3	2~3
71. 청주 황단리	ⅢiBb식(요강), ⅢiCb식(부장공간+요강), ⅢiDb식	5	3
72. 공주 정지산	ⅢiDb식, ⅢiiDb식	4	1
73. 공주 신관동	ⅢiBb식(요강), ⅢiDa식(사물곽)	2	2
74. 공주 금홍동	ⅢiAb식(편방), ⅢiDb식	2	2~3
75. 공주 금학동	ⅢiDa식(사물곽), ⅢiDb식	5	2~3
76. 연기 보통리	ⅢiAb식(편방), ⅢiiDb식(편방), ⅢiiAb식(편방), ⅢiiDb식	6	2~3
77. 연기 연기리	ⅢiiDb식	1	2
78. 연기 갈운리	ⅢiDb식, ⅢiiAb식(편방), ⅢiiDb식	27	2~3
79. 공주 제천리 당암리	ⅢiAb식(부장공간), ⅢiDb식	5	1~2
80. 연기 연기리 석삼리 대박골	ⅢiiAb식(편방)	1	2
81. 연기 장재리	ⅢiAb식(부장공간, 편방)	3	2
82. 연기 봉기리 116번지	ⅢiiAb식(편방)	1	2
83. 대전 미호동	ⅢiBb식(요강)	1	2
84. 보령 구룡리/옹천 구룡리	ⅢiAb식(부장공간, 편방), ⅢiBb식(사우혈+요강), ⅢiDb식	5	2
85. 부여 화지산	ⅢiiDb식	1	2
86. 부여 송국리 XIII	ⅢiBb식(요강), ⅢiDb식, ⅢiiBb식(요강)	11	2~3
87. 논산 원북리	ⅢiBb식(요강), ⅢiCb식(편방+요강)	5	2~3
88. 논산 원북리 정지리	ⅢiDb식	3	2
89. 서천 추동리	ⅢiAb식(부장공간), ⅢiDb식	12	1~2
90. 논산 동산리 담배산	ⅢiBb식(요강)	2	3
91. 옥천 옥각리	ⅢiAb식(부장공간, 편방), ⅢiCb식(편방+요강)	3	3
92. 옥천 인정리	ⅢiBb식(요강), ⅢiiCb식(편방+요강)	2	3

(1) 1단계

고려 전기인 10세기 전엽~12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1단계로 분류되는 토광묘는 총 26기이다. IIIAb식, IIIBb식, IIICb식, IIIDb식, IIIiAb식, IIIiBb식, IIIiDb식이 확인되며 (도면 9), 무묘역시설(II)의 목관묘(i)와 단순토광묘(ii)에 부장시설(A) 혹은 벽사시설(B)이 단독으로 설치되는 형식이 주를 이룬다. 곡장·제단 등 묘역시설(I)과 사물곽(a)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로 서울 고덕동·암사동, 청주 용암·율량동, 충주 호암동, 공주 정지산 등에서 1단계 토광묘들이 확인되는데, 고려의 거점인 광주목, 충주목, 청주목, 공주목 등에 분포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과대, 철도자 등 지방호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복식품 조합 또는 편병·해무리굽완 같은 초기 단계의 청자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도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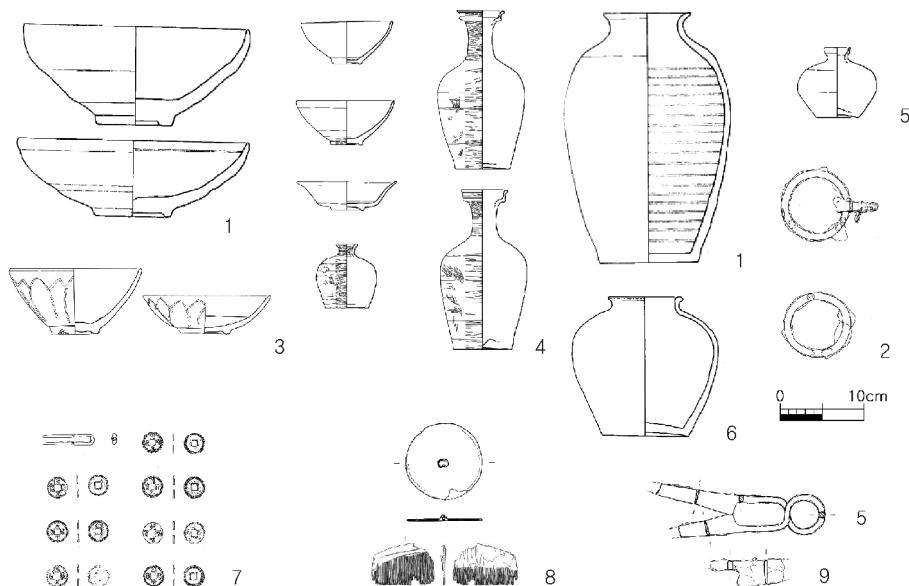


[도면 10] 양광도 지역 토광묘의 1단계 출토유물
(1. 충주 호암동 Ⅱ-2 25호묘, 2. 서울 암사동 89호묘, 3. 안성 만정리 6-1호묘)

(2) 2단계

고려 중기인 12세기 중엽~13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2단계의 토광묘는 총 339기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IIiAa식, IIiAb식, IIiBb식, IIiDa식, IIiDb식, IIiIa식, IIIiAb식, IIIiBa식, IIIiBb식, IIIiCb식, IIIiDa식, IIIiDb식, IIIiAb식, IIIiBb식, IIIiDa식, IIIiDb식이 확인되며(도면 8·9), 묘역(I)·무묘역시설(II)의 목관(i)·단순토광묘(ii)에 망인의 시신보호를 위한 사물곽(a)이 새로 등장한다. 주로 강화 대산리, 공주 제천리 당암리, 연기 갈운리, 청주 봉명동, 청주 용암, 청원 마산리, 충주 호암동 등 임시수도였던 강도와 공주목, 청주목, 충주목 일대에 집단 분묘군이 분포한다. 이외에도 고양 더부골, 안산 대부도 육곡, 서천 추동리 등에서도 집단 분묘군이 확인되었다. 2단계 전반 기에는 연판문의 청자발, 직립광구형 청자도기병, 청동시, 8자형 철제가위 등의 조합

이 주를 이루며, 후반기에는 압출양각문의 청자발, 도기호, 청동시·저, '8'자형 철제 가위 등의 조합과 2단계 전체적으로 동경과 동전 등이 주요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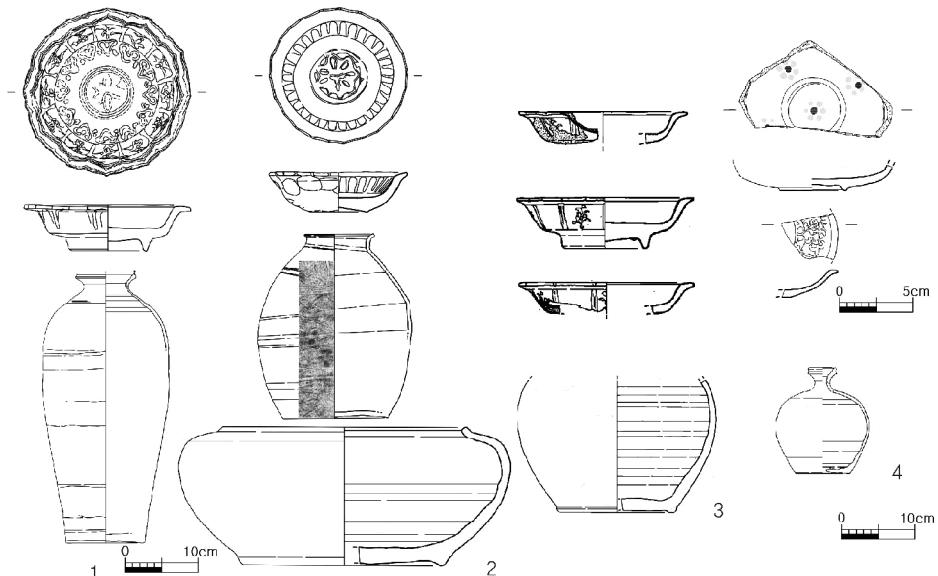
[도면 11] 양광도지역 토광묘의 2단계 출토유물

(1. 고양 더부골 36호묘, 2. 청주 봉명동 IV-C 25호묘, 3. 서천 추동리 A-16호묘, 4. 공주 신관동 1호묘, 5. 연기 갈운리 52-2 49호묘, 6. 고양 더부골 24호묘, 7. 청주 봉명동 IV-C 10호묘, 8. 청주 용암 금천동 II-1 46호 묘, 9. 안산 대부도 14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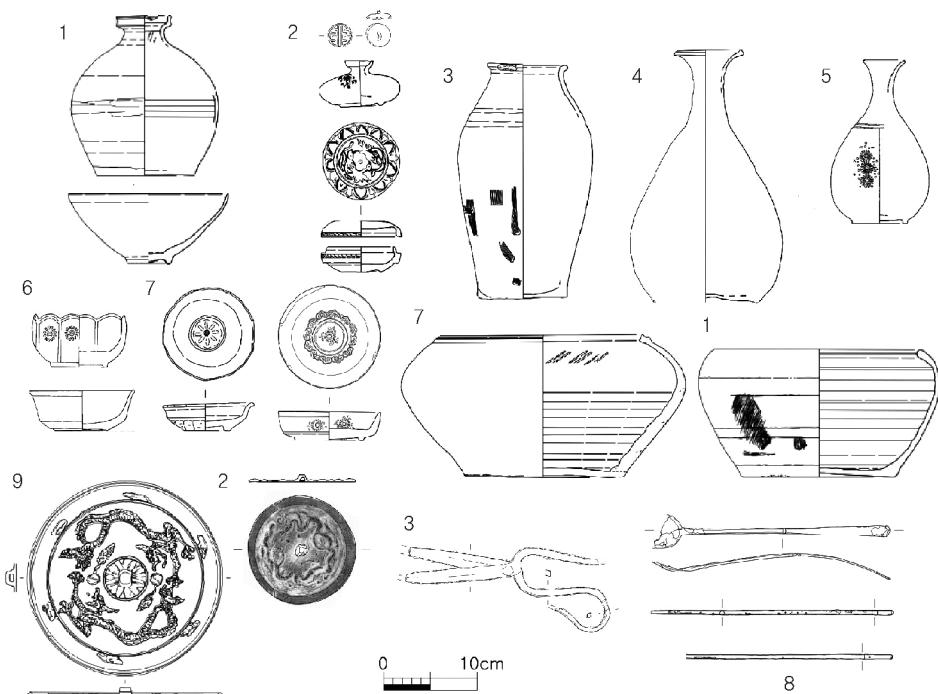
(3) 3단계

고려 후기인 13세기 후엽~14세기 후엽에 해당한다. 3단계의 토광묘는 총 210기로 IIaAb식, IIaBb식, IIaCa식, IIaDa식, IIaDb식, IIIaAb식, IIIaBb식, IIIaCb식, IIIaDa식, IIIaDb식, IIIaAb식, IIIaBb식, IIIaCb식, IIIaDb식이 확인된다(도면 8·9). 3단계에는 묘역시설(I)과 무묘역시설(II)이 공존하며, 새롭게 IIaCa식과 IIIaCb식이 등장한다. 2단계에서 보였던 무묘역시설(II) 내 사물곽(a)이 IIIaDa식을 제외하고 소멸된다. 묘역시설묘(I)에서 목판묘(i)만 남게 되며, 사물곽(a)이 시설되는 사례가 2단계보다 증가하게 된다. 주로 남양주 지금동, 충주 호암동 등 남경(양주목), 충주목에서 집단 분묘군이 분포한다. 이 외에도 고양 더부골 고분군, 서울 천왕동 연지 유적, 평택 수월암리 유적 등에서도 집단 분묘군이 확인된다.¹²⁾

12) 한강 이남 서울, 평택, 화성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모두 고려 초기 안남도호부 수주의 주현·속현으로 고려 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2] 강화 왕릉 출토유물
(1. 강화 곤릉, 2. 강화 능내리 석실분, 3. 강화 석릉, 4. 강화 가릉)



[도면 13] 양광도지역 토광묘의 3단계 출토유물
(1. 화성 우음도2 65호묘, 2. 연기 갈운리 52-2 65호묘, 3. 화성 우음도1 5호적석토광묘, 4. 부여 송국리 XII 68호묘, 5. 청주 봉명동 IV-B 3호묘, 6. 고양 더부골 9호묘, 7. 충주 호암동 복합3지점 43호묘, 8. 용인 공세동 고분D, 9. 화성 반월 1호묘)

또한 강화 곤릉(1239), 석릉(1237), 가릉(1244), 능내리 석실분(1232~1270) 등 임시수도로 기능하였던 강도의 왕릉에서 출토되는 부장품과 같은 유형의 기종이(도면 12) 개성 복귀 이후인 13세기 후엽의 묘역시설묘(I)에서부터 국화문상감청자, 화형접시, 청동시·저 조합과 'X'자형 철제가위, 도기장동호, 도기항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도면 13).

III.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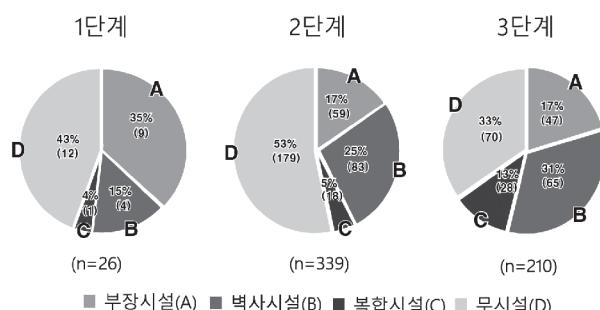
1.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점유현황

양광도지역 토광묘 575기애 대한 형식별 분류현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각 단계별 점유도표와 변화점이 도출되었다(도면 14). 앞서 살펴본 바로, 유교 삼례서와『朱子家禮』등에서 강조한 매납의례와 벽사의례를 가장 충실히 표현한 형식인 복합의례시설(C)의 점유현황을 각 단계별 변화과정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장송의례 시설의 43%가 무시설식(D)으로, 벽사와 매납의례를 동시에 행한 복합의례시설(C)은 1기로 확인되어 유교사상적 장송관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였다. 2단계에서는 무시설식(D)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복합의례시설(C)이 18기로 축조량이 증가한 점을 확인 할 수 있고, 동시에 사물과(a)이 새로 등장하여 1단계보다 유교사상적 장송관념이 본격적으로 습득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복합의례시설(C)의 점유도가 증가하고, 무시설식(D)이 대폭 감소한 경우를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朱子家禮』도입 후 유교사상적 장송관념의 보편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료와 대조하여 장송관념의 변화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보고자 한다.



[도면 14] 양광도지역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단계별 점유도

2.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단계별 변화과정

1)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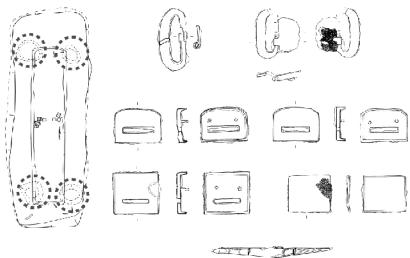
1단계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V-11지점 18호 토광묘(IIIDb식)와 청주 용암 금천동 12호 토광묘(IIIDb식) 등 철제과대와 철도자가 함께 출토되어, 주로 고려 전기 지방 세력과 연관되며(김명훈 2017: 69~80), 장송의례 시설과 관련한 근거를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아보겠다.

사료4) 12월 대나의, “대나의 하루 전날, …그 중 1인은 방상시로, 가면을 쓰는데 네 개의 눈이 달린 황금빛이고 곰가죽으로 겹은 옷과 붉은 치마를 입으며, 오른손으로는 칭을 잡고 왼손으로는 방패를 잡는다.”¹³⁾

사료5) 10대 정종 6년(1040), “…12월에는 유사에 명령하여 대나의를 하면서 희생을 찢어 죽이고, 토우로써 한기를 몰아낸다.”¹⁴⁾

사료6) 6대 성종 6년(987), “이제 경서에 통달하고 책을 두루 읽은 선비와 온고지 신하는 무리들을 뽑아 12목에 각각 경학박사 1명과 의학박사 1명을 파견할 것이다…, 개경에 천거해 올리라.”¹⁵⁾

기존 연구와 달리 고려 전기부터 『周禮』의 영향을 받은 고려 군례 ‘계동대나의’를 통해 벽사의 기능이 전파되었고(사료4·5), 방상시가 네 모퉁이를 치는 행위인 사우혈을 만정리 1호묘와 도곡리 6호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면 15).¹⁶⁾ 사료6에서는 지방의 통제를 위해 설치한 12목에 경전¹⁷⁾을



[도면 15] 1단계 벽사시설 사우혈 예시
(안성 만정리 6지점 1호 토광묘 및 출토유물)

13) 『高麗史』, 卷六十四, 志 卷第十八, 禮 六, 季冬大儻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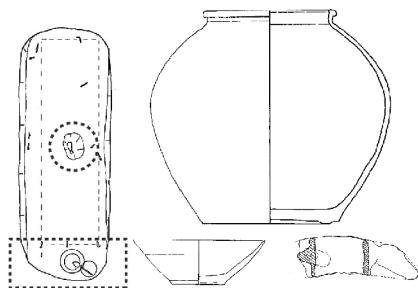
14) 『高麗史』, 卷六十四, 禮 六.

15) 『高麗史』, 卷三, 世家, 卷第三, 成宗 6年.

16) 『高麗史』 속 계동대나의는 『周禮』, 『朱子家禮』, 『國朝五禮儀』에서 표현하는 장송과정의 방상시의례와 그 형태 및 의미가 유사하므로, 사료5와 같이 고려 전기에 기록된 ‘대나의’ 역시 토광묘 장송의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경전은 통상적으로 유교 경전을 말한다. 해당 사료에서는 『禮記』, 『樂經』, 『詩經』, 『書經』을 언급하였으며, 유교 삼례 중 『禮記』가 포함된다.

가르치는 경학박사를 파견하고 지방학교를 설치하여 유교식 상장례의 전국적 보급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양광도의 경우 남경(양주목), 광주목, 청주목, 충주목, 공주목 등 5곳이 해당한다. 또한, 남경 인근인 고양 더부골 22호묘의 요갱과 별도의부장공간이 따로 시설되는 등 복합의례시설(C)이 확인되었지만, 그 사례가 불충분하여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의 본격적 수용 전 단계인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면 16).



[도면 16] 1단계 복합의례시설 예시
(고양 더부골 고분군 22호묘 및 출토유물)

2) 2단계

2단계에는 총 339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12세기 중엽부터 곡장·제단 등이 설치된 IIaA식, IIaB식, IIbB식, IIcDa식, IIcDb식, IIIcDb식의 묘역시설묘(I)가 새로 등장하며, IIIaA식, IIIaB식, IIIaBa식, IIIaBb식, IIIaCb식, IIIaDa식, IIIaDb식, IIIaAb식, IIIaBb식, IIIaDa식, IIIaDb식과 같은 무묘역시설묘(II)도 계속 확인된다. 또한, 2단계에는 묘역(I)·무묘역시설(II)묘에 석회, 점토, 가는모래, 목탄 등 사물을 시설하는 사물곽(a)이 총 15기가 등장한다. 주로 사료6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로 지방학교가 설치된 충주목, 청주목, 공주목 일대에 사물곽(a)이 시설된 토광묘가 집중되었으며, 2단계에 사물곽(a)이 등장한 배경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료7) 16대 예종 4년(1109), “국학에 7재를 설치하였다.『周易』을 이택재,『尙書』는 대빙재,『毛詩』는 경덕재,『周禮』는 구인재,『戴禮』는 복옹재,『春秋』는 양정재,『武學』은 강예재라고 하였다.”¹⁸⁾

사료8) 양숙공 묘지명(17대 인종 13년, 1135), “…, 장례 치르는 날 특별히 글을 내려 조문하고, 국자감 대사성 이중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김용선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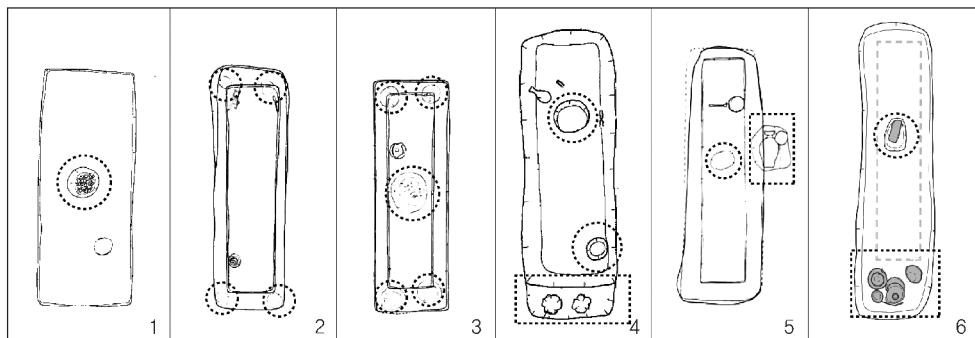
사료7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 중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교 삼례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시작되면서 중앙교육기관인 국학에도 『儀禮』¹⁹⁾와 『周禮』를 별도로 교육하는

18) 『高麗史』, 卷七十四, 志 卷第二十八, 選舉 二, 睿宗 四年.

19) 『儀禮』에 대해서는 大禮, 小經 등 관점에 따라 여러 명칭이 있다.

기관이 생길만큼 과거제와 함께 각 경전에서 다루는 유교적 장송관념의 보급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료8의 17대 인종 13년(1135) 사망한 양숙공 최홍재의 묘지명에서는 국자감²⁰⁾의 대사성을 파견해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품관직의 장송의례에 유교사상적 장송관념을 적용한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교 삼례의 예법을 따라 사물과(a)을 시설하는 토광묘의 증가를 불러왔고, 충주 단월동 2차 B-1·2·4·5·6·7호 토광묘의 ‘백회’와 ‘천회’, 충주 누암리 23-1호 묘광바닥에 깔린 3~7cm의 ‘회백색 모래질’, 천안 남산리 1호 토광묘의 ‘석회’ 등이 사물과(a)으로 시설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周禮』에서 강조하는 묘광의 방습기능을 위해 조개껍질을 뺏아서 사용하거나 회와 섞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충주 호암동 2지구 30호 토광묘에서는 묘광바닥에 철재를 깐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周禮』에 기록된 방합의 방습기능이 철생산지인 다인철소와 가까웠던 충주목의 지역적 특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단계의 벽사시설(B)은 총 83기로 1단계에 비해 대폭 증가한다. 이와 함께 요갱과 사우혈이 동시에 시설된 ‘총인의례(冢人儀禮)’ 시설도 확인된다(도면 17-3).²¹⁾또한 요갱과 함께 별도의 부장공간을 마련하여 매납의례와 벽사의례를 동시에 한 복합의례시설(C)도 고양 더부골 10·21·28·31·32·40·48호묘, 충주 호암동 복합 II-56·69·105·198·286호묘, III-34호묘, 청주 봉명동 III지구 B-23호



[도면 17] 2단계 벽사시설 및 복합의례시설 예시

- (1. 청주 봉명동 IV-C 10호묘, 2. 청주 금천동 II-1 177호묘, 3. 청주 금천동 II-1 183호묘, 4. 고양 더부골 10호묘, 5. 청원 마산리 11호묘, 6. 충주 호암동 복합 II 56호묘)

20) 고려시대의 유학교육기관은 930년 學校, 976년 國子監, 989년 國學, 1314년 成均館 등 기관이 변경 또는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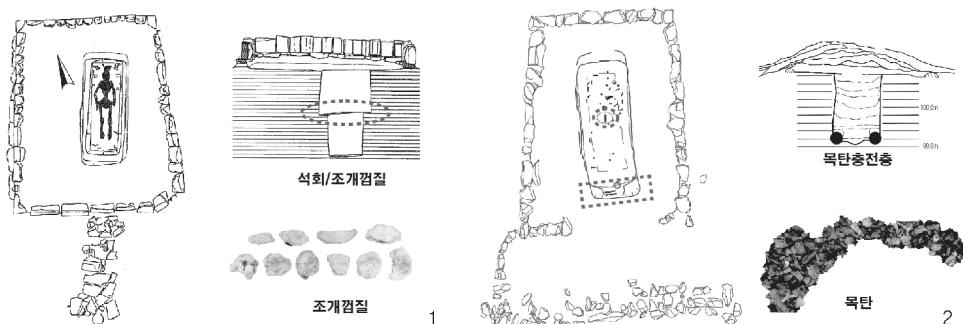
21) 총인의례시설은 『儀禮』에서 묘를 관리하는 총인이 묘의 중앙과 네 구석을 파는 의례로서 토광묘 내 요갱과 사우혈이 동시에 확인되는 시설을 말한다(장우정 2023: 77~78).

묘, 청원 마산리 11호묘, 논산 원북리 다지구 98호묘 등 총 18기에서 확인된다(도면 17-4 · 5 · 6). 이는 1단계부터 이루어진 유교 삼례 교육과 전문화로 2단계에 유교사상적 장송의례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3단계

3단계에는 총 210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IIaA식, IIbB식, IIcDa식, IIcDb식, IIIaAb식, IIIbB식, IIIcB식, IIIcDa식, IIIcDb식, IIIiAb식, IIIiBb식, IIIiDb식은 2단계에 이어서 확인되고 있다. 사물곽(a)이 시설된 IIcDa식은 화성 반월지구 1호묘, 화성 송라리 1호묘에서 확인된다. 특히 송라리 1호묘의 경우 회곽묘의 형태를 떠며, 관 상부 회곽에서 굴과 조개껍질이 확인되었다(도면 18-1). 이는 『周禮』에 기록된 방습기능을 위한 조개류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부장시설(A)과 벽사시설(B)을 함께 갖춘 새로운 형식으로 IIcCa식, IIIiCb식이 등장한다.

IIcCa식은 용인 공세동고분D가 해당하며(도면 18-2), 부장시설(A)인 편방과 벽사시설(B)인 요갱이 확인되어 복합의례시설(C)로 분류되고, 사물곽(a) 중 목탄과 가는 모래로 방습·방충 기능을 더하였다. 이는 묘역시설(I) 토광묘에서 복합의례시설(C)과 사물곽(a)이 동시에 확인되는 첫 사례로, 3단계에 이르러 품관직의 피장자가 벽사의례와 매납의례를 같이 행하여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를 더 구체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현상은 13세기 후엽 『朱子家禮』의 전래에 따른 변화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전거는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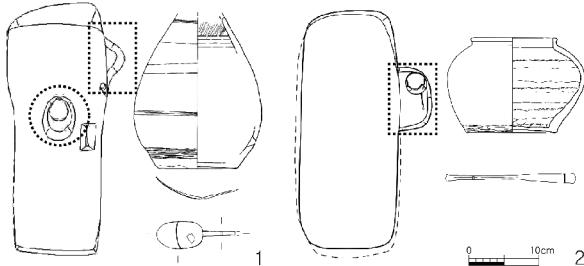


[도면 18] 3단계 사물곽 예시
(1. 화성 송라리 1호묘_IIDa식:묘역/목관/무사설/사물곽, 2. 용인 공세동D_IICa식:묘역/목관/복합의례/사물곽)

사료9) 34대 공양왕 원년(1389), “…공자께서 4치의 관과 3치의 꽈을 제정하고서 도 오히려 그것이 빨리 썩을까 두려워 하였으며, …, 곡식을 관 속에 넣어두면서도 땅 강아지와 개미가 혹시 침범할까봐 두려워 하였습니다.”²²⁾

사료9를 통해 28대 충

렬왕 15년(1289) 유학 제거 안향이 원에서 『朱子家禮』를 전래한 이후로 고려 후기의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는 더욱 구체화·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3단계에 새로 등장한



[도면 19] 3단계 단순토광묘 장송의례 시설 예시
(1. 옥천 인정리 3지점 4호묘 및 출토유물, 2. 평택 장당동 가지구 105호묘 및 출토유물)

IIIiCb식인 옥천 인정리 4호묘에 편방과 요갱이 함께 시설되어 있어 하관 전 요갱에 도기병을 매납하는 벽사시설(B)을 진행 후 하관 이후 편방을 만들어 청동시를 매납하는 부장시설(A)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19-1). 또한, IIIiAb식인 평택 장당동 105호묘는 벽사의례(B)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단순토광묘(ii)의 편방 내부에 다소 낮은 계층성을 보이는 도기호를 부장하여 유교사상적 장송의례의 보편화 사례로 추정된다(도면 19-2). 결국, 사료9와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을 통해 『朱子家禮』에서 중시한 전 계층에 대한 예법보편화에 따라 정호충 이하 계층까지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IV.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의 배경

고려시대 토광묘의 피장자는 분묘축조와 장송의례를 할 만큼의 경제력과 권위를 가진 이속(吏屬)으로서 과거를 통한 품관진출이 가능했던 정호충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²³⁾ 따라서, 토광묘의 피장자는 과거제를 통해 유교 삼례서인 『周禮』, 『儀

22) 『高麗史』, 卷八十五, 志 卷第三十九, 刑法二.

23) 고려시대는 전체적으로 공음전 및 음서제를 영위한 상위계층인 귀족층과 하위계층으로 일반 농민인 백정 혹은 서인 사이에 지방 향리인 호장/호정과 같은 향리나 중앙관서의 서리 등 이속직을 하거나, 그 신분적 우위로 과

『禮』, 『禮記』와 신진사대부의 예서였던 『朱子家禮』를 토대로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를 습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고려시대 전체를 아울러 유교 예서의 이용·실무자였던 피장자의 유교사상적 장송관념이 적용된 장송의례 시설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유교 삼례서와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

1) 『周禮』

『周禮』는 주 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시대 각 나라들의 제도를 기록한 경전으로 후대 중국과 고려왕조 관직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료10-1) “총인은 공묘의 땅을 관장하여 그 묘지의 경계 지역을 판단하고, … 하관 할 때는 도끼를 잡고 임한다. 또 명기들을 넣어서 저장하고 묘의 자리를 정돈하고….”²⁴⁾

사료10-2) “방상시는 광부 4명이 담당한다.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황금으로 된 4개의 눈을 하고, …, 묘지에 이르면 광중에 들어가서 창으로 네 모퉁이를 쳐서 망랑을 몰아낸다.”²⁵⁾

사료10-3) “장신(掌蜃)은 딱딱한 껌질이 있는 종류와 대합조개 종류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관장한다. 국가에 상사가 있으면 광중에 깔아 습기를 막는 대합조개를 제공한다.”²⁶⁾

사료10-1에서 『周禮』 중 총인은 장송의례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하관시에 특정 의례를 행하며 명기를 부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부합되는 장송의례 시설 중 하관 이후에 부장되는 명기들이 부장되는 ‘부장공간’이나 ‘편방’인 부장시설(A)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료10-2에서 방상시는 묘지에 도착한 후 묘광에 들어가서 창으로 네 모퉁이를 치는 행위를 통해 악귀를 몰아낸다. 따라서, 방상시가 하관 이전 · 이후에 묘광의 네 모퉁이를 치는 행위가 관념화되어 고려시대 토광묘의 네 귀퉁이에 시설된 벽사시설(B)인 사우혈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거를 통해 하급품관으로 진출가능한 군인전/외역전 등의 전시과 혜택을 받는 ‘정호충’과 같은 중간계층이 있다 (허홍식 2005: 261,447).

24) 『周禮』, 「春官宗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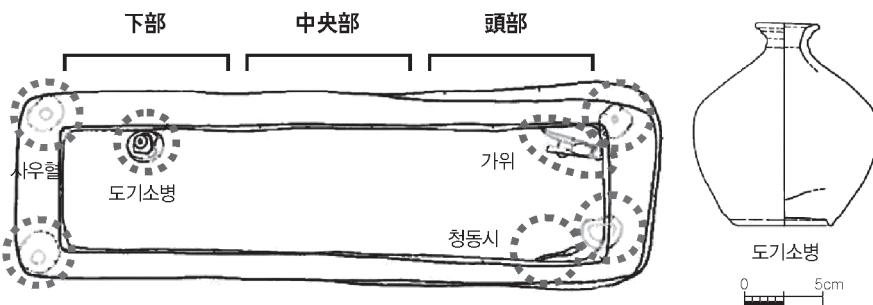
25) 『周禮』, 「夏官司馬」.

26) 『周禮』, 「地官司徒」.

다. 사료10-3에서 장신은 매장주체부의 방습을 위하여 조개껍질을 묘광바닥에 시설하는데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굴·조개껍질을 빻아서 만든 석회석껍질 등이 확인되는 사물곽(a)과 상통한다. 따라서 부장시설에 소형기명 등의 명기가 부장되는 경우나, 방상시의례의 사우혈이 시설되는 동시에 소형기명이 나오는 경우, 또는 묘광바닥에서 조개껍질류가 확인되는 경우 등을 모두 『周禮』의 유교적 장송의례를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도면 20). 이러한 장송의례 요소가 확인되는 토광묘를 [표 4]로 나타내었다.

[표 4] 『周禮』의 장송의례 사례

유적	유구	유물	시설	사물곽	단계
안성 만정리 신기	1호묘	과대금구, 철도자, 관정	사우혈	無	1
충주 호암동 복합 Ⅲ지점	34호묘	편방(청자발, 청자접시, 청동사), 도기호, 청자유병, 胡蝶文鏡, 관정	소혈/편방	無	2
청주 용암 금천동 Ⅱ-1	177호묘	도기소병, 청동사, 8자형 철제가위	사우혈	無	2
화성 송라리	1호	목제빗, 菊花文鏡, 동반지, x자형 철제가위, 관정	無	조개껍질	3
화성 산척리 A지구	13호묘	편방(청동합, 청동명기, 청동사)	편방	無	3



[도면 20] 『周禮』의 장송의례 제요소(용암 177호묘)

2) 『儀禮』

『儀禮』 중 사상례는 士가 행하는 상례로서 처음 죽음에서부터 시신을 입관하고 장사지낼 때까지 안치하는 예로, 초혼부터 소렴·대렴 후 입관하는 3일간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료11-1) “설치(楔齒)에는 뺄수저를 사용하고 밀을 펼때는 연궤(燕几)를 사용한다.”

사료11-2) “상투를 틀 때의 비녀는 뽕나무를 사용…, 중앙을 편평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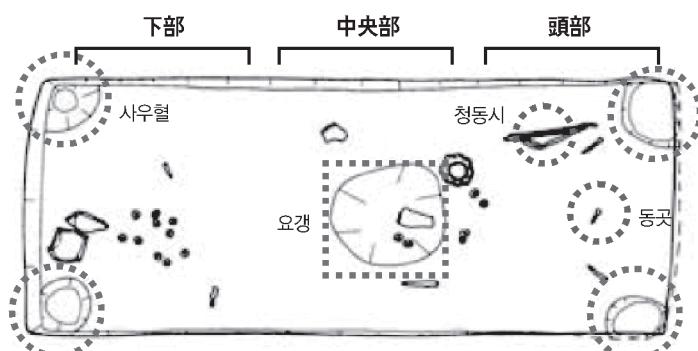
사료11-3) “산소 자리를 점치는 일은 총인이 관리한다. 네 모퉁이를 파서 그 고운 흙을 밖으로 하고, 중앙을 파서 그 고운 흙은 남쪽으로 한다.”²⁷⁾

사료11-1, 2에서는 시신의 설치과정에서 뽕수저를 입에 물리거나, 염습과정에서 뽕나무 비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토광묘에서 주로 확인되는 청동시와 동곳이 뽕수저와 뽕나무 비녀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11-3을 통해 묘역을 정하는 과정 중 이를 관장하는 직책은 총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총인은 묘역의 네 귀퉁이를 파고, 중앙을 파서 흙을 바깥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양광도지역 토광묘의 사우혈과 요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식과 유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총인의례시설(B)’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도면 21).

이러한 장송의례 요소가 확인되는 토광묘를 [표 5]로 나타내었다.

[표 5] 『儀禮』의 장송의례 사례

유적	유구	비녀	청동시	사우혈+요갱	단계
청주 용암 금천동 II-1	148호묘	頭部	묘광벽	有	2
청주 용암 금천동 II-1	185호묘	頭部	묘광벽	有	2
청주 용암 금천동 II-1	207호묘	頭部	묘광벽	有	3
청주 산남동 원흥리 VI	19호묘	頭部	無	有	2
청주 산남동 원흥리 VI	2호묘	頭部	頭部	有	3



[도면 21] 『儀禮』의 장송의례 제요소(산남동 2호묘)

27) 『儀禮』, 「土喪禮」.

3)『禮記』

『禮記』 중 상대기편은 초상부터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절차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료12-1) “소신은 뿔로 만든 수저를 이용해서 입을 벌리게 하고, …, 이러한 예법은 君主·大夫·士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료12-2) “머리를 감긴 뒤에는 소신이 손톱을 깎고 수염을 자른다.”

사료12-3) “머리카락과 손발톱은 주머니에 넣어 네 구석에 담는다. 士의 경우라면 관에 담지 않고 매장한다.”²⁸⁾

사료12-1을 통해 사망한 직후 반함²⁹⁾을 위해 뿔로 만든 수저를 사용해서 입을 벌리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광묘에서 뿔로 만든 수저의 대용으로 청동시를 사용한 경우가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료12-2에서는 염습 전에 시신을 씻기는 절차로서 머리를 감기고 난 뒤 손톱을 깎고 수염을 자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광묘의 경우 해당 과정의 상장례도구로서 이미 용도구 중 하나인 철제가위 이외에 청동제 삭도가 출토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사료12-3에서는 입관 절차 중 혹은 장송과정 중에 망자의 손발톱과 머리카락의 처리를 설명하고 있다. 君主와 大夫는 입관시 관의 네 구석에 담거나, 士의 경우 관에 담지 않고 매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간의 연구결과로 토광묘의 피장자는 ‘士’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확인되며 손발톱과 머리카락의 처리를 위해 묘광의 네 귀퉁이인 사우혈에 매장한 것으로 파악된다(도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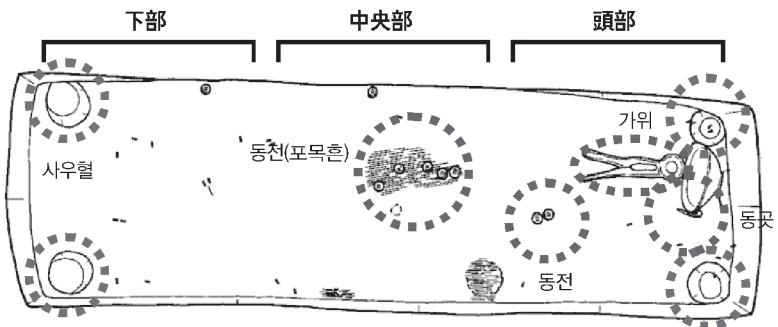
이러한 장송의례 요소가 확인되는 토광묘를 [표 6]으로 나타내었다.

[표 5]『儀禮』의 장송의례 사례

유적	유구	동전	철제가위	머리카락	시설	단계
청주 용암 금천동 Ⅱ-1	30호묘	中央部(1)	묘광벽	無	사우혈	2
청주 명암동 1지구	4호묘	頭部(2)	頭部	無	사우혈	2
충주 단월동 2차	B-4	無	無	中央部	편방	2

28)『禮記』,「喪大記」.

29) 염과 습을 할 때, 혹은 하기 전에 입에 쌀 또는 동전을 물리는 절차.



[도면 22]『禮記』의 장송의례 제요소 (명암동 4호묘)

2. 『朱子家禮』와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

1) 『朱子家禮』

『朱子家禮』는 고전예서인 『儀禮』, 『禮記』 등을 보완하고 남송의 풍속을 참작하여 관·혼·상·제를 나눠 전 계층에 대한 예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료13-1) “곽은 …, 마침내 부패하게 되고 헛되이 광중만 넓고 크게 하여 견고하지 못하니 쓰지 않는 것이 낫다. …, 지금 곽을 쓰려하지 않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사료13-2) “땅을 파고 바로 내려가 광을 만들고 나서 관을 매달아 하관하는 것이 있고, 수도를 뚫고 옆에 토실을 파서 그 안에 관을 밀어 넣는 것이다. 옛날에는 오직 천자만이 수도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밖에는 모두 바로 파 내려가 광을 만들고 관을 매달아 하관하였으나, …, 그 땅을 파는 데는 마땅히 좁고 깊어야 하니, 좁으면 무너지지 않고 깊으면 도굴꾼이 가까이하기 어렵다.”

사료13-3) “회격을 만든다. 광을 파는 일이 이미 끝났으면 먼저 재를 광의 밑바닥에 깔아 두께 2~3치를 다진다. 그 후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화오를 골고루 섞은 것을 그 위에 펴는데, 석회 3푼에 두 가지는 각각 하나씩이 좋다. …, 곧 사방에 네 가지 물질을 둘러 넣고 역시 얇은 판으로 막는다. 재는 밖에 넣고 세 가지 물질은 안에 넣는데 밑바닥의 두께와 같게 한다. …, 또 재는 나무뿌리를 막고 물과 개미를 피하게하며, 석회는

모래와 섞이면 단단해지고 황토와 섞이면 차져서 세월이 오래되면 결국 온전한 돌이 되니, 땅강아지와 개미와 도둑이 모두 들어올 수 없다. …, 법령 중에 석과의 사용을 불허하므로 감히 온전한 돌을 쓰지 못한다.”

사료13-4) “방상시가 앞에 있으니 광부로 하고 과복을 도사같이 입고서 창을 잡고 방패를 두른다. 4품 이상이면 눈이 네 개 있는 방상시로 하고, 이하면 눈이 두 개 있는 기두로 한다. …, 방상시가 도착한다. 창으로 광의 사방 모퉁이를 친다.”

사료13-5) “명기 이하는 흙이 반 정도 차기를 기다렸다가 곧 그 옆에 편방을 뚫어서 저장한다.”

사료13-6) “목욕과 반함할 도구를 진설한다. …, 동전 3개를 작은 상자에 넣는다. …, 빗 하나, 머리수건 하나 등을 상체와 하체에 각각 하나씩 사용한다. …, 이에 밥을 물린다. …, 머리수건을 들고 숟가락으로 쌀을 조금 떠서 시신의 입 오른쪽을 채우고 아울러 동전 하나를 넣는다. …, 대나무나 나무로 비녀를 만든다.”

사료13-7) “하관한다. 새끼 네 가닥을 영구 바닥의 쇠고리에 끼워 묶지 않고 내린다. …, 따로 가는 베나 생견을 접어서 영구 밑으로 넣어서 내린다. 다시 빼내지 않고 그 나머지는 잘라버린다.”³⁰⁾

상기 사료들은 상례기간 중 관을 제작하고, 묘광을 조성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료13-1, 3에서는 분묘의 목과과 석과 특히 석재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시신의 보호를 위해 목재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료13-2에서는 왕릉급에서 사용하던 석실·석과묘의 묘도 사용을 불허하며 오직 관을 매달아 내리는 하관의례를 할 것을 말하고 있다.³¹⁾

사료 13-3에서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묘광을 깊고 좁게 굴토하거나, 재를 사용해서 뿌리와 물, 개미 등을 막고,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여 벽을 단단하게 만들 것을 말하고 있다. 토광묘의 경우 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목관묘(i)와 묘광이 좁고 깊어지는 것은 2단굴광 축조법과 묘광바닥에 철재 또는 재와 목탄 등을 시설하는 토

30) 『朱子家禮』, 「喪禮」.

31) 횡구식 석과묘의 구조를 차용하여 ‘매장주체부-통로부-묘도’의 횡구식의 수혈을 설치해 토광의 매장주 체부에 입관을 시키는 장송의례가 조선 전기 토광묘와 석과·석실묘에서 확인되지만, 『朱子家禮』의 예법이 정착되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소멸한다(조영선 2022: 149~152).

광묘나 보강토 혹은 묘광바닥에 석회가 사용되는 회묘³²⁾등이 사물곽(a)과 상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료13-4에서는 상장례에 사용되는 명기 등을 들고 상여를 이끄는 역할은 피장자의 품계가 4품 이상이면 눈 네 개의 방상시가, 4품 이하면 눈 두 개의 기두가 대신하며 묘소에 도착 후에 창으로 묘광의 사방 모퉁이를 친다고 하였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토광묘에서 확인되는 사우혈과 눈 두 개의 기두가 행하는 의례로 이소혈(二小穴)³³⁾과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도면 23). 이어서 사료13-5에서는 장송의례 중 하관 이후에 흙을 덮고 옆에 편방을 뚫어 명기 등을 저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제사에 쓰는 음식류는 부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시신과 멀리 떨어진 편방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와 직접 상통하는 것이 토광묘의 편방과 그 출토유물이다. 또한 사료13-6을 통해 염습 전에 행하는 구슬과 동전을 이용한 반함의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장송의례 요소 역시 토광묘에서 자주 확인된다. 숟가락과 동전을 청동시와 동전으로, 시신의 머리를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비녀를 동곳으로 모두 토광묘 출토유물로 등치시킬 수 있다. 사료13-7에서는 장송의례 과정 중 하관에 대한 설명으로 새끼줄을 쇠고리에 끼워 하관하고 남은 줄을 잘라 버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역시 실제 토광묘에서 출토되는 관고리와 철제가위의 연관성을 추정할



[도면 23] 방상시 (『景宗國葬都監儀軌』반차도, 『四禮便覽』방상시 · 기두)

32) 본 연구에서는 회격묘, 회곽묘 등을 포괄하여 회묘라고 통칭하겠다.

33) 고려시대 토광묘의 바닥에서 주로 확인되는 두 개의 작은 수혈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눈 두 개의 기두가 행하는 벼사의례의 시설로 '이소혈'이라 명명하였다.

34) 고려 · 조선시대 분묘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구슬 1점 혹은 동전 1점이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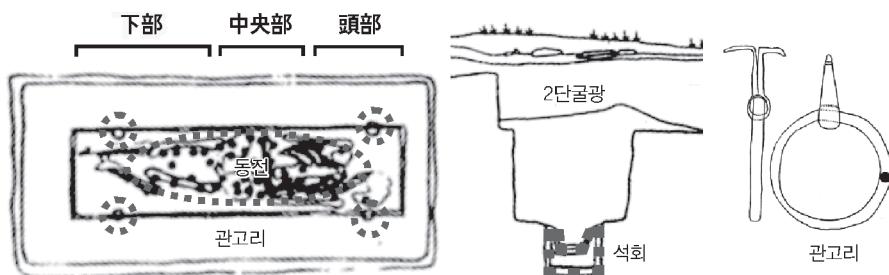
수 있다.

따라서, 종전의 유교 삼례서에서 보였던 유교사상적 장송의례 시설과 요소가 계속 되는 동시에 별도로 새로운 요소가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을 『朱子家禮』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되는 토광묘의 장송의례 시설로서 사우혈과 이소혈이 확인되며, 2단굴 광이나 사물곽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도면 18 · 24). 이러한 장송의례 요소가 확인되는 토광묘를 [표 7]로 나타내었으며, 모두 3단계로 확인되어 『朱子家禮』도입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朱子家禮』의 장송의례 사례

유적	유구	청동시/동전/동곳	철제가위	관고리	시설	사물곽	단계
용인 공세동	D	청동시 · 저, 동전16	有	無	요갱/편방	목탄	3
화성 반월지구	1호	청동시 · 저, 동전41	無	有	2단굴광	목탄/석회	3
화성 송라리	1호	無	有	無	2단굴광	석회/ 조개껍질	3
안성 만정리 3지점	1호	청동시	無	無	이소혈	無	3
단양 현곡리	6호	동곳	有	有	無	無	3
청주 용담동 2~3지점	4호	無	無	無	사우혈	無	3
부여 송국리 XII	65호	청동시 · 저	無	有	2단굴광	無	3



[도면 24] 『朱子家禮』의 장송의례 제요소 (화성 반월지구 1호묘)

V. 맷음말

본 연구는 고려시대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을 당대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속성을 분석하고 형식분류와 순서배열을 통해 장송관념의 변화과정과 배경 파악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을 양광도지역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양광도지역의 토광묘를 유교 예서의 보급과정과 출토유물을 검토하여 총 3단계로 분류하여 그 결과로 단계별 변화과정 속에서 주요 배경이 되었던 예서『周禮』,『儀禮』,『禮記』,『朱子家禮』속 내용과 토광묘 장송의례 시설을 비교하여 일치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1단계인 고려 전기(10세기 전엽~12세기 전엽)부터 12목에 설치된 지방학교를 통해 유학이 보급되면서 유교사상적 장송의례가 토광묘의 부속시설인 사우혈과 요갱으로 확인되었고, 2단계인 고려 중기(12세기 중엽~13세기 중엽)엔 국학에 설치한 7재를 통해 유교 삼례의 전문 교육이 시작되면서 토광묘에 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물곽(a)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3단계인 고려 후기(13세기 후엽~14세기 후엽)엔 『朱子家禮』의 보급으로 유교사상적 장송의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행하는 복합의례시설(C)이 묘역시설(I)과 무묘역시설(II)에 정호총 등의 중간계층과 그 이하 계층까지 등장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투고일 2023. 8. 31 | 심사완료일 2023. 9. 27 | 게재확정일 2023. 10. 10

참고문헌

- 『高麗史』.
- 『景宗國葬都監儀軌』.
- 『禮記』.
- 『儀禮』.
- 『周禮』.
- 『朱子家禮』.
- 강경숙, 2015, 『유적출토 도자기 바로보기』, 진인진.
- 建國大學校博物館, 1995, 『忠州 丹月洞 古墳群 2次發掘調查報告書』.
- _____, 2000, 『도로기술연구원 건립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화성 산척리 무덤 떼-』.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수월암리 유적』.
-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 고금님 · 장지현, 2013, 「호남지역 고려 분묘의 변천양상과 그 의미」, 『湖南考古學報』43호.
- 고인해, 2020, 「경기지역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 『고고학』제19권, 중부고고학회.
- 고현수, 2004, 「南韓地域 高麗 古墳의 副葬品 埋葬方式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9,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I』.
- _____, 2020,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II』.
- 國立公州博物館,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 _____, 1999, 『艇止山』.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江華 碩陵』.
- _____, 2007, 『江華 高麗王陵』.
- 國立清州博物館, 2000, 『清州明岩洞遺蹟(I)』.
- _____, 2001, 『清州明岩洞遺蹟(II)』.
- _____, 2002, 『清州龍潭洞古墳群』.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공세동 고려고분』.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천왕동 연지유적』.
- _____, 2017, 『남양주 지금동유적 1 · 2 · 3권』.
- _____, 2019,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강화 대산리 고려분묘군 5 · 6권』.
- 김명훈, 2017, 「高麗 鎏帶의 變遷과 地方勢力의 動向」,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선, 2023, 『(속)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지식미디어센터.
-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1995, 「안산 부곡동 옛무덤 발굴조사 보고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 간) 유적 발굴조사보고서(1)』.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忠州 虎岩洞 複合遺蹟 I ~ VI』.
- 明知大學校博物館, 1993, 『高陽中山地區 더부골 古墳群遺蹟I』.
- 文化財研究所, 1991, 『中原 樓岩里 古墳群』.
- _____, 1992,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 박미옥, 2006, 「고려 토팡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열, 2010, 「고려시대 토팡묘의 구조와 그 특징: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열, 2012, 「분묘유적을 통해 본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의 장례문화」, 『한국중세사연구』34호, 한국중세사학회.

- 半月地區遺蹟發掘調查團, 1978, 「一里·元時里古墳發掘調查報告書」, 『半月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
-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a, 『公州 濟川里 唐岩里 遺蹟』.
- _____, 2014b, 『論山 院北里·定止里 遺蹟』.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8, 『丹陽 玄谷里 高麗古墳群』.
- 설지은, 2015, 「湖西地域 高麗時代墳墓出土 鉄鏡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승철, 2011, 「忠北地域 高麗~朝鮮初期 土壙墓 考察」,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택, 2005, 「京畿北部地域 14~16세기 土壙墓 研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 2022, 「철제가위의 변천양상 연구」, 『선사와 고대』68권, 한국고대학회.
- 이성배, 2013, 「충청지역 고려조선의 내부시설 연구-요강과 벽감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정, 2022, 「高麗時代 墓域式墳墓의 性格과 位階: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인, 2002, 「中部地方 高麗時代 古墳 研究-石槨墓와 土壙墓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우정, 2023, 「高麗時代 土廣墓의 葬送儀禮 變化科程과 그 背景-楊廣道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2015, 「경기지역 고려 분묘 조성의 확대와 사후관」, 『한국중세사연구』41호, 한국중세사학회.
- 정의도, 2007, 「韓國古代青銅匙箸研究-高麗時代」, 『石堂論叢』38호,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 조영선, 2022, 「조선시대 횡구식 묘제의 출현과 배경」, 『중앙고고연구』제39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주영민, 2005,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9~16世紀 墓域施設墳墓를 中心으로-」, 『지역과 역사』17호, 부경역사연구소.
- _____,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혜안.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1, 『論山 院北里 遺蹟』.
- _____, 2005, 『淸原 大栗里 馬山里 楓井里 遺蹟』.
- _____, 2006, 『淸州 山南洞 遺蹟』.
- _____, 2011, 『旼岐 葛雲里 遺蹟』.
- _____, 2015, 『平澤 簿堂洞 遺蹟』.
- _____, 2016, 『남양주 지금동1 유적』.
- _____, 2017, 『남양주 지금동2 유적』.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2, 『沃川 仁政里 遺蹟』.
- _____, 2015, 『淸州 龍潭洞 호미골 遺蹟』.
- 忠州博物館,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 _____,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 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1998, 『忠州 虎岩洞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忠清文化財研究院, 2006, 『公州 新官洞 遺蹟』.
- 韓國文化有產研究院, 2018, 『華城 牛音島 高麗墳墓群』.
- _____, 2019, 『華城 牛音島 高麗墳墓群(II)』.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淸州 龍岩 遺蹟(I·II)』.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9, 『松菊里XII』.
- 鶴林大學博物館, 1988, 『驪州 梅龍里 용강골古墳群』.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고덕동 · 암사동 유적』.
- 漢陽大學校博物館, 2002,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
- _____, 2006,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 II』.
-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 황은경, 2011, 「고려시대 양광도지역 분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uneral Ritual Facilities for Pit Tombs in the Goryeo Dynasty

- With focus on the Yanggwang Province -

Chang, Woo-Jeong(Researcher, HwaSeo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funeral rituals around pit tombs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ism as the ruling ideology of Goryeo in the Yanggwang Province.

Type I of tombs with facilities along the boundary used a wooden coffin(i) to bury the deceased, given the tomb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hibited cases of tomb repair. They held an exorcism ritual(B) to promote the well-being and protection of the deceased or a burial ritual(A) to bury artifacts around the main burial part. The social classes with an official rank or economic power placed importance on a funeral ritual based on Confucian ideology. Type II of tombs with facilities along no boundary recorded a lower occupancy rate of four-object outer coffins(a), which protected the bodies of the deceased in a simple pit(ii) compared with a wooden-coffin tomb(i), than Type I of tombs with facilities along the boundary. These findings confirm that the social class using a simple pit(ii) in tombs with facilities along no boundary(II) had a tendency to place importance on courtesy such as the funeral ritual based on Confucian ideology.

The study then figured out the attributes related to the funeral rituals, classified them into three stages, and examined the spreading and changing process of a funeral ritual based on Confucian ideology. Stage 1 fell in a period between the early part of the tenth century and the early part of the 12th century. Stage

1 confirmed no cases of tombs with facilities along the boundary(I) or forms of four-object outer coffins(a) from Jurye and Jujagarye. The stage had one case(4%) of complex ritual facilities(C) that were understood to follow the Confucian courtesy best. Based on the dispatch of professors of Confucianism to 12 Moks in the sixth year(987) of King Seongjong's reign and certain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the Bangsangsi Narye(B) in the sixth year(1040) of King Jeongjong's reign, it was confirmed that Stage 1 marked the beginning of the spread of a funeral ritual based on Confucian ideology. Stage 2 fell in a period between the middle 12th century and the middle 13th century, witnessing an increase both in the occupancy rate and construction volume of complex ritual facilities(C) and the appearance of four-object outer coffins(a) to prevent the decomposition of bodies. In Stage 2, a funeral ritual based on Confucian ideology became specialized based on the installation of Gukhak 7 Jaes in the fourth year(1109) of King Yejong's reign and some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the funeral guidelines of Gukjagam Daesaseong in the 13th year(1135) of King Injong's reign. Finally, Stage 3 fell in a period between the latter part of the 13th century and the latter part of the 14th century, witnessing the appearance of new types including IiCa and IIIiCb along with the growing occupancy rate and construction volume of complex ritual facilities(C). Type IiCa was the first case to have both complex ritual facilities(C) and four-object outer coffins(a) in facilities along the tomb boundary(I). It is understood that buried people in the Pumgwan rank acquired the Confucian funeral rites more specifically, which was a prohibited case of tomb repair, around the time. Type IIIiCb represents a new case of complex ritual facilities(C) in facilities along no boundary(II) with grave goods of relatively low economic value including single items such as pottery found in it. It becomes clear that all of the social classes followed the Confucian courtesy by the time.

The study examined three major Confucian courtesy books including Jurye, Uirye, and Yegi along with Jujagarye as the background of these Confucian funeral rituals. Jurye confirmed Pyeonbang, which buried Myeonggi after the coffin was lowered, Sauhyeol of Bangsangsi Narye, and four-object outer coffins(a)

containing shells for the Bangseup of the main burial part. Uirye confirmed the presence of the Chongin ritual(Sauhyeol+Yogaeng) performed by Chongins. Yegi confirmed the usage of spoons and chopsticks in the Seolchi process and that of scissors used before dressing a corpse for burial like others of the three Confucian courtesy books. Jujagarye confirmed the Sauhyeol of Bangsangsi Narye, the installation of Pyeonbang, and the usage of four-object outer coffins(a) to protect the body.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estimated that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funeral ritual around pit tombs in Goryeo came from the three major Confucian courtesy books and Jujagarye.

Key words : Goryeo, Pit Tombs, Funeral Ritual, Confucianism